

한국해운협회, 해운업의 도약과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 역할 계속해 주길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한국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(수) 19시 30분 서울에서 개최된 ‘한국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’에 참석할 예정이다.

이날 기념식에는 HMM과 고려해운, 장금상선 등 해운협회의 주요 30여 개 해운선사와 해양진흥공사, 한국무역협회,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, 한국해양대 등의 업무종사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.

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‘한국해운 2050 비전(Vision)’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무역 대국을 견인하기 위한 ▲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 제고 ▲국민경제 발전 기여 ▲고부가가치 해운산업혁신 ▲안정적인 해운 인력확보 ▲친환경 해운 달성이라는 주요과제와 세부 실천전략*을 발표할 예정이다.

* 수출입 화주와 공급사슬 파트너십 강화, AI·빅데이터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선도, 2050 해양인명사고 제로화, 국적선박 GHG 배출량 Net-Zero 달성 등

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지난 70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우리 경제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, 해운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준 해운업계에 경의를 표한다.”라며, “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범부처 ‘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’을 통해 친환경 해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하는 한편, “해운업계도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로 우리 해운기업이 글로벌(Global) 넘버-원(Number-One)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.”라고 말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임지현	(044-200-5710)
	해운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지홍	(044-200-5711)